고운사 청소년 문화복지 지원사업 시동

고운청소년재단, 안동청소년문화센터 기공식

의성 고운사(주지 호성)가 안동 청소년문화센터를 기공하고 미래의 주역이 될 청소년들을 위한 문화복지 지원사업의 시작을 알렸다.

고운청소년재단(대표이사 호성)은 10월 8일 안동 태화동 '안동 청소년문화센터' 부지에서 기공식을 개최했다.

안동청소년문화센터는 고운사 소유 부지 5122㎡에 49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연건평 3297㎡,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2012년 10월 완공을 목표로 지어진다. 센터에는 6개 강의실과 자치활동실과 정보화교육실, 시청각실, 체력단련실 등이 들어서 청소년 문화감수성 계발과 건전한 여가생활을 위한 공간 등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날 기공식에는 축서사 선원장 무여 스님과 조계종 초심호계원장 정념 스님, 법주사 주지 노현 스님 등 600여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고운청소년재단 이사장 호성 스님은 "안동청소년문화센터를 중심으로 고운사는 지역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자라고, 꿈과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고운청소년재단은 10월 8일 안동 태화동 안동청소년문화센터 부지에서 기공식을 개최했다. 센터에는 6개 강의실과 자치활동실, 정보화교육실, 시청각실, 체력 단련실이 들어서며 2012년 10월 완공을 목표로 세워진다.

고운청소년재단은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경북 북부지역 청소년 문화복지사업 활성화를 목적으로 2009년 10월 설립됐다. 고운사 주지 호성 스님을 비롯해 청량사 주지 지현 스님, 봉정사 주지 자현 스님, 삼보사 주지 등운 스님, 용담사 주지 정우 스님, 유석사 주지 도륜 스님 등 고운사 본 · 말사 스님들이 이사와 감사로 참여 중이다.

고운청소년재단은 2010년 초부터 안동시내에 '안동 청소년활동센터'를 열어 청소년문화교실, 방과후교실, 지역사회적응훈련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주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선운사 도솔암 범종 타종식 개최

전북 고창 선운사 도솔암(감원 종고)는 10월 10일 범종불사 타종식을 봉행했다.

타종식에는 선운사 주지 법만 스님, 범려 스님, 이강수 고창군수 등 1000여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종고스님은 "지장 기도 도량인 도솔암의 모든 사부대중과 불자들이 3년 여의 기간 동안 힘과 뜻을 모아 모든 중생들을 구제하고, 정각에 이르도록 하겠다는 발원이다"고 말했다.

범종은 무게 1300관, 높이 2.4m, 둘레 5m의 규모로 부산 홍종사에서 약 4개월간을 거쳐 조성됐다. 도솔암은 범종 타종에 이어 내년 말 준공을 목표로 범종각 신축 불사를 진행한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전북 고창 선운사 도솔암은 10월 10일 범종불사 타종식을 봉행했다. 범종은 무게 1300관, 높이 2.4m, 둘레 5m의 규모로 부산 홍종사에서 약 4개월간을 거쳐 조성됐다.

다문화가정과 더불어 살기

나주 지역 다문화가정을 위한 가을단풍체험 및 전통문화체험 행사가 개최됐다.

나주 심향사(주지 원광) 부설 지혜나눔실천회는 나주시(시장 임성훈)와 함께 10월 17일 고창 선운사에서 다문화가정 70여 가구를 초청해 '다가치, 다함께, 다문화' 가을 단풍 여행을 실시했다. 행사에는 보물찾기, 엄마 아빠와 사탕 먹기, 사찰 전통음식 체험 등의 전통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중국, 베트남, 필리핀 등에서 온 이주민들은 자녀들과 함께 넉넉한 가을의 체취를 느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원광 스님은 "여러 차례 행사를 진행하면서 자주 만나다보니 이제는 서로 편해진 것 같다"며 "다문화 가정과 공동체 문화를 만들어 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나주 심향사 지혜나눔실천회는 10월 17일 중국, 베트남, 필리핀 등에서 온 이주민 가족들과 함께 가을 단풍여행을 실시했다. 가족이 함께 게임을 하며 넉넉한 가을을 만끽하고 있다.

자장면 한 그릇에 행복 전해

남원 선원사 임실 탄약창 장병들에 자장면 대접

남원 선원사(주지 운천)는 10월 17일 선원사 봉사단(단장 최인술)과 함께 임실 탄약창 호국 장영사 법당을 찾은 장병 200여 명에게 자장면을 대접했다.

운천 스님은 신도들과 함께 직접 현장에서 면을 뽑고 자장을 볶으며 군복무중인 장병들을 위로했다.

운천 스님은 법문에서 "국민의 안위를 위해 봉사하고 있는 군 장병들은 진정한 보시행을 실천하고 있는 것"이라며 "군 복무기간동안 큰 탈 없이 건강한 몸으로 전역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남원 선원사 주지 운천 스님(왼쪽)이 장병들을 위해 직접 자장면 면발을 뽑고 있다. 이날 선원사는 군장병 200명에게 자장면을 대접했다.

도영스님 백산장학재단 설립

"인재육성에 매진"

교육과 포교에 평생을 매진해온 도영 스님이 장학재단을 출범했다.

전 조계종 포교원장 도영 스님은 10월 14일 전주 리베라 호텔에서 백산장학재단 설립 기념법회를 열고 인재불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백산장학재단 발기인을 도영 스님 외에 전 동화사 기본선원장 영진 스님, 대전죽림정사 주지 광진 스님 등이다.

한편 도영 스님은 이날 문집 〈보름전 일은 묻지 않겠다〉 출판 기념회도 함께 열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광주 부루나 존자들 뭉쳤다.

조계종 포교사단 광주전남지역단(단장 정영균)는 10월 16일 상무중학교 운동장에서 70여 포교사가 참여한 가운데 단합대회를 가졌다.

이번 단합대회는 지난 1년간의 포교사들의 포교활동을 격려하고, 회원 간의 단합을 목적으로 진행됐다. 또 광주지역 뿐 아니라, 강진, 목포, 영광, 순천, 광양, 해남, 나주 등 전남지역에서 활동하는 포교사들까지 참여해 포교사의 만남이 장을 이루기도 했다.

포교사단 광주전남지역단은 사찰안내, 소년원교화, 교도소교화, 염불봉사, 문화예술봉사팀 등을 운영하고 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기장미역' 북한 산모에 전달

'북녘 산모 및 어린이를 위한 기장미역 제공 협약'

기장군 북녘 돕기 나서

북녘의 산모와 어린이들에게 기장미역이 전달된다.

기장군(군수 오규석)은 부산경남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상임대표 정여, 범어사 주지, 이하 민족돕기운동)을 통해 북한에 8400만원 상당의 미역을 전달하기로 했다.

오규석 기장 군수(오른쪽)는 부산경남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에 북한 산모와 어린이를 위한 기장 미역 3750㎏을 전달했다.

기장군과 민족돕기운동은 10월 19일 기장군청에서 북녘 산모 및 어린이를 위한 기장미역 제공 협약식을 개최했다. 기장군은 미역 이외에도 기장의 특산물인 멸치와 다시마, 흑미 등 지원 가능한 농산물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기장군이 지원하는 1차분 기장미역은 컨테이너 1대 분량으로 약 3750㎏의 마른 미역이 북녘 남포 등으로 보내질 예정이다. 북한에 전달할 시기는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과 협의를 해 결정되며 이르면 다음 달 중 북한에 보낼 예정이다.

이날 민족돕기운동은 기장군과 북한이 문화, 관광, 과학, 기술 등의 분야에 상호교류 · 협력에 편의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재진 부산지사장

"의로운 죽음 역사 개척"

보승사, 순국선열 위한 영산대재… 추모음악회

순천 보승사(주지 영도)는 10월 16일 순천 금당공원에서 여수 · 순천사건 희생자와 임진왜란, 한국전쟁 순국선열의 넋을 위로하고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영산대재와 추모음악회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광주지역 전통불교영산회 회원스님들의 영산재 의식과 방곡사 회주 묘허 스님의 법문, 추모음악회가 열려 한국 근현대사에서 이념분쟁의 비극으로 희생된 여수 · 순천사건 희생자들의 넋을 위로하고 그 뜻을 기렸다.

방곡사 회주 묘허 스님은 법문에서 "죽음은 단순히 삶을 마감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과 역사를 개척해 나가는 인연이다. 의로운 죽음은 다음 세대를 위해 불연(佛緣)을 만드는 선행이다"라고 말했다.

보승사 주지 영도 스님은 인사말에서 "선조들의 삶을 바로 알아 그 분들의 수고와 희생의 가치를 깨닫는 것은 후손된 이의 도리이다. 특히, 목숨 바쳐 이 나라를 지켜 오늘에 물려준 그 은혜에 우리는 항상 감사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강했다.

영산대재에 이어 열린 추모음악회에서는 우하 스님의 회심곡과 살풀이, 휴암 스님의 팔상성도 및 왕생가, 사물놀이, 가수 조항조의 노래공연, 합창단 공연, 탑돌이 의식 등이 진행됐다.

이날 행사를 주최한 보승사는 불교세가 약한 전남 순천 지역에서 개원한지 1년도 채 되지 않은 신설 도심 포교당으로, 순천지역 불자들이 거는 기대가 큰 도량이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지리산, 가을에 물들다!

실상사 가을 한마당 축제

남원 실상사(주지 해강)와 산내면 지역공동체 한생명은 11월 13일 실상사 일대에서 가을 한마당 축제를 개최한다. 축제에는 솟대 기원 및 놀이마당, 살림장터, 중고 아나바다, 지역작품전시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11월 10~13일 실상사 보광전 옆에서는 '실상사 가을바람 전'을 열고 지역 예술인의 그림 및 공예품을 전시한다. 이상언 기자